

## 서독에 다녀와서

고려병원 중앙공급실 수간호원 김 정 인

내가 서독에 다녀온 것은 1964년 11월 부터 1967년 까지 약 3년 간이다. 이른 겨울철 이었지만 날씨는 제법 따듯했다. 친지들의 전승을 받으면서 비행기 트랩에 오른 나는 대한민국 여성으로써 또 한국의 간호원으로써 누구와도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겠고, 또한 모범된 한국의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떠나게 된 동기는 학창시절 은사님의 권고로 당시 한국을 방문중이던 서독의 병원행정관을 우연히 소개 받으면서 부터였다. 독일병원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젊은 시절을 외국에서 보람있게 보내고 돌아온다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느껴졌다. 내가 서독에 머문 곳은 서부의 북부 지방인 노드웨스트화펜에 파다본 市로 인구는 약 200만 정도이고 시민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중소도시였다.

우리가 머문 병원은 1,000병드의 종합병원으로 주로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환자 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다. 병동은 소아외과 또는 내과 같이 科별 분류도 있었으나 대부분 男子 병동과 女子 병동을 구분해서 쓰고 있었고 특실은 性別에 關連없이 입원시키고 있었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감기 정도의 가벼운 질환으로도 입원해 있는 수가 많았다. 내가 그 곳에서 내과 병동에 근무하는 동안 나는 환자 들의 대부분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당뇨병 환자 이거나 아니면 노인들의 가벼운 뉴르시스 환자 들이 많았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같이 경사스러운 축제 기분에 들뜬 계절에는 외래 노인환자 들이 많이 入院하고 있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보험회사가 활발히 움직여서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잘 받을 수 있겠으나 人生의 황혼이 돼 오면 자손들도 제대로 어울려 주지 않는지 노인들은 쓸쓸해 보였고 공원이나 산책 하며 소일하곤 했다. 후일은 완전히 엔조이 할 줄 알았고 근무시간에는 부러울 만큼 열심히 일할 줄 아는 국민 들이었다.

내가 있었던 병원은 외국인 들이 많이 있어서 터키, 시리아, 아프리카, 중국 등 각종 피부, 언어, 사상이 틀린 국민 들이 모여서 있었으나 그 중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늘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한국 간호원은 나와 동행한 S가 있었고 그 후 C 大學의 K 교수님이 一年간 머물러 계셨다. 독일 인들은 매우 부지런했으며 진취적이고 낭만적인 국민들이어서 음악을 즐기며 가정 마다 악기가 준비돼 있었고 삶에 대한 생활력으로 싱싱하게 靑창돼 있었다.

그 곳에서는 휴가를 一年에 4주간 받았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은 여행을 하거나 또는 2주씩 나누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서독에서는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여름철 휴가중에 아르바이트는 보통 1달 2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기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하면서는 곳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절하게 되는데 무전으로 여행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긴 여행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병원에 처음 도착한 후에는 우선 휴식을 취하라는 병원측 배려로 긴 여독을 풀었다. 숙소는 아파트를 얻을 수도 있었으나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아 기숙사에 머물기로 했다. 7층 석조 건물의 기숙사에는 통마다 부엌과 응접실

도서실의 시설이 있었고, 부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각종 취사 도구가 갖추어져 있었다. 응접실에는 피아노, 전화, 텔레비와 악기 종류가 준비돼 있었고 도서실에 장서도 풍부히 준비돼 있어서 항상 독서할 수 있었다. 방은 대개 一人용 베드와 옷장, 테이블, 의자, 전화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병원도착 후 각 부서에 대한 인사 소개와 병원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근무부서는 원하는 대로 배당되어져서 자신의 취미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달이 잘 통하지 않아 처음 3個月간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주사 투약등 직접적인 의료 근무는 하지않았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 조금 넘었다. 4시간 일하고 2시간 정도 휴식 후에 나머지 4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었다.

처음 6個月 간은 고된 시련을 겪어야 했다. 언어장벽에다가 한국간호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올바른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환자들도 내가 주사하는 것을 꺼리고 불안해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차츰 인식이 달라져서 우리들의 기술이 그들보다 훨씬 나을뿐더러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다. 환자들도 「한국간호원이 주사를 놓으니 아프지 않더라!」면서 우리 두 사람을 찾았다. 처음 一年 동안 나는 저녁에 독일어 학교에 다녔다. 이 학교는 의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며 3個月쯤 지나자 일상회화에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익숙해 졌다. 접촉하는 사람이 대개가 독일사람이고 일상회화를 독일어로 해야 하니까 자연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곳 지리와 언어장애로 휴일에는 병원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창살없는 갇육」의 생활 이였었다. 어느정도 회화에 자신이 생기자 시내에 쇼핑도 나가고 주말에 여행도 하면서 시가치를 구경했다. 독일은 각치가 꽤 아름다운 도시였고 날독의 슈발쯔발트나 알드스 산의 웅장함 등 어찌고 산이 있는 곳은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좋았다.

일상의 식사는 아침에 구운빵과 소세이지, 켈커피 등이고 점심은 튀긴감자와 야채 그리고 고

기가 나온다. 고기는 스틱 종류나 튀긴 것 등 여러 종류, 저녁은 빵과 과일 또는 라이스 요리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 한국식의 조리법과는 전혀 틀리다. 쌀밥은 우리처럼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기름에 튀겼거나 케찹 등을 섞은 것들이다. 독일 사람들은 쌀은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많아서 좋다고하며 껍 씹겨 먹는다. 그러나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 곤란한 경우 우리는 백화점에 나가 재료를 쇼핑해다가 오랫동안 한국식사를 하곤했다.

그 곳의 보수는 일정치가 않다. 출국 전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립이나 주립병원보다는 사립병원이 대우가 좋다고 볼 수 있다. 그곳에서 있는동안 처음에는 우리나라 소개가 잘 안되어져서 많은 곤란을 겪었다. 어린 환자들은 나를 보고 아프리카에서 왔느냐고 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나 백화점 등에서는 일본사람으로 오인받는 수가 많았다. 머리칼 색깔이 검고 체구가 작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간호원 중에는 그 곳에서 보수를 받기 위해 경력이나 관계서류를 속이다가 발각되어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들은 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간호원은 경력을 속였다가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 한다. 독일인들은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이 되면 여러사람 앞에서 창피를 준다. 이럴 때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한국 간호원들에게도 영향이 온다.

그 곳에 병원행정관들이 말하는 가장 난처한 점은 폐결핵 등 신체장애를 숨기려고 가짜 건강진단서를 구렸다가 발각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다. 일본사람으로 오인한 사람이 가끔 일본 상들을 만날 때 가장 불쾌 했었다.

한번은 독일인 여학생이 나를 일본의 가수인 줄 알고 싸인해 달라고 줄라 당황한 일이 있었다. 당시 독일에서 인기를 끌던 일본인 뚜렛 가수과 우리가 너무 닮았다는 것이었는데 예쎄 한국사람 입을 설명하느라하면 답답할 때가 많았다.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해야 할 만큼 한국 소개가 되어있지 않았다.

요즈음은 피견 간호원 수가 많아 씨클 활동도 있고 그 곳의 재독 한국인들과 유대도 맺고 있다고 들었으나 당시엔 한국인이 드물었다. 한국 간호원들 중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타국으로 떠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뿐 아니라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임을 받게 되므로 곤란한 점이 있다고 들었다.

물론 한국에서의 미국 행 수속은 복잡하고 장시간을 요한다 하지만 출국 당시 한국에서 서득으로 떠나 계약 기간을 완료한 후 귀국 또는 제 3국으로 나가 일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으나 계약기간 중에는 그러한 무성의한 태도는 본인은 물론 다른 한국인들에게 결코 좋지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리라고 본다.

나는 내과 여자 병동에서 일 하였는데 성실하게 일한 보람으로 과장 수녀의 신임을 받았었다. 서득 간호원의 부지런함은 우리가 뒤따르지 못 할 정도였다. 신체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코피가 날 정도로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기술면에서는 우리가 신속하고 능률적이고 민첩하지만 자칫하면 피를 부린다는 인상을 받을 경우도 있어 이 점에 신경을 무척 썼다.

우리가 귀국할 당시에는 한국에서 많은 간호원들이 파견되었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다 한국 간호원의 주가가 점점 올라가며 또한 기능면에서 현지인을 앞질러 간다는 점은 같은 한국의 간호원으로써 무척 기쁜 일이라고 본다.

여가 시간은 대개 LP관 수집이나 피아노로 소일하는 수가 많고 나의 경우 그 곳에서 진학이 가능 했었다. 시내에 나가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사게되고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품은 대개 소평하지 않았다.

그 만큼 시간과 금전을 애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외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수월하지만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떤 분 중에서는 시간나는 대로 모든 과외활동에 다 참여하고 있었다.

축 수영강습, 요리강습, 크라식키타 훌롯 등 또 자동차 운전면허를 얻어서 차를 사가지고 여

행하고 싶은 여러 곳을 두루 다니는 분도 있었다.

가끔 그 곳의 지방 유지의 초대를 받는 수도 있는데 한번은 그 곳의 유지되시는 분 가정에서 초대를 받았다.

주말 오후 우리와 미리 상의하여 한국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 순 한국식으로 만두국, 생선찌개, 김구이, 오징어요리, 잡채, 된장국, 상추쌈 등을 준비하고 고추장도 곁들였다.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이고 우리들을 흠뻑에 걸리지 않게 위로해 준다고 마음 써준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음식을 맛본 후 자극성이 있지만 맛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종종 한국식으로 음식 장란을 해야겠다고 좋아하는 적이 있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어서 등에 배여 있었고, 흥겨운 장소에서는 남녀노소 연령에 제한없이 즐겁게 어울려 놀 줄 알았다. 그 곳의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해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4 계절의 구분이 명확치를 알았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함과 더불어 정원의 화초가 아름답지만 특히 부활절 꽃의 노오란 빛같은 너무도 곱고 아름답다. 여름은 한국에 비해 무덥지는 않으나 피서를 즐기느라고 남쪽이나 이태리로 떠나는 수가 많고, 여름의 날씨는 대부분 맑지 못하고 어찌다 뿌른하늘에 맑은 날씨가면 잔디 위에서 일광욕 하느라고 아우성 들이었다. 병원에도 여름철에는 환자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며는 매우 바빠지게 된다.

가을의 날씨는 한국의 맑고 푸른 청명한 날씨는 극히 찾기 힘들지만 선선하고 낙엽지는 길가에는 랑데뷰를 즐기는 젊은 아베크 족들이 성급하게 겨울을 계속하곤 했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와 연말로 대개 들떠있게 되는데 신정에는 비교적 조용히 보내게 된다.

크리스마스도 극히 종교적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애기 예수 탄신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서 은 가족과 함께 축복받는 나날을 맞게 된다.

12월 첫번째 일요일부터 아드벤프라고 하여 축복을 네게 준비하고 4주를 지내면 드디어 4

개의 촛불을 다 밝히면서 애기 예수님의 탄신일을 맞게 되는 아주 성스러운 날로 지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곳에서 파벨트 매년마다 21일 경미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냈는데 루기명 선물교환도 즐거웠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물품을 선물할 줄 아는 그네들의 마음쓰임에 탄복하곤 했다.

서독병원의 행정절차 중 서류는 종류가 비교적 많고 까다롭지만 반드시 한국에 조퇴를 해 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고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본다.



보수는 각 주마다 다르고 본인이 시간적으로 여유있고 건강에 자신만 있다면 시간 의뢰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저축할 수 있겠고 비교적 여행하기가 수월해서 구라파와 남극의 각 처를 다닐 수 있어 좋았다.

나는 서독에서 3년동안 지낸 것을 인생 수업에 서나 의뢰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피나는 노력과 비장한 각오가 앞서야 했다.

그 곳 사람들의 근실성과 겸소한 생활 책임감과 친절한 태도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사진 :

근무하던 병원의 뒷 정원에 선 필자

## 투 고 를 바 람 니 다

### 1. 연구 논문

간호학, 간호사업, 간호원에 관한 것

### 2. 의 견

「대한 간호」지의 편집 방향에 대한 의견  
간호와 관계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

### 3. 수 기

간호와 관계 있는 것

### 4. 시·풍토

가급적 간호와 관계 있는 내용

### 5. 소 식

간호에 관계되는 일체의 소식, 단 증양지, 전문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기재할 것.

접수는 수시로 하며 본지 게재분에 대하여는 본회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대한 간호협회 출판부》